

■ 최신 해외정보 - 미얀마 ■

글로벌 보험사들의 미얀마 진출

미얀마의 보험 시장은 1963년 이후 유일한 국영 보험회사인 미얀마보험회사(Myanmar Insurance Company)에 의해 독점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재경부 산하 보험업감독원(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Board)은 지난 2012년 4월 미얀마 보험업의 민영화를 선언하고, 6월까지 20여 개 민간 기업의 보험업 허가신청을 받아서, 9월 5일 12개의 민간업체¹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본금은 생명보험 전업의 경우 60억 짜트(또는 \$7 million), 생명보험과 일반보험(General License)²을 동시에 영위하기 위해서는 460억 짜트(또는 \$53 million)가 필요하고 납입자본의 40% 이상을 은행계좌에 유지해야 합니다.³ 이 기업들은 보험업감독원의 검토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보험시장 개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험업의 허가와 감독을 담당하는 재경부 차관이 미얀마 국내 민간보험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난 후에는 보험시장을 개방할 것이고, 그 시기는 2015년 정도가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추어,⁵ 미얀마 정부가 보험시장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보험사들의 미얀마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푸르덴셜, 홍콩 AIA그룹, 캐나다 매뉴라이프 등 세계적인 보험사들이 미얀마 진출을 고려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도쿄해상, 손보재팬, 미쓰이스미토모가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⁶

¹ 현재 생명보험 3개사, 생명보험 및 일반보험 9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² 일반보험에는 총 5종이 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car insurance), 화재보험(fire insurance), 환전보험(money exchange insurance), 현금이체보험(cash transfer insurance) 및 귀중품보험(insurance of valuables)을 말합니다.

³ 선정된 예비 보험업자들이 보험업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정식 허가를 받는 경우 3백만 짜트의 라이선스 수수료와 1백만 짜트의 연회비를 미얀마 보험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⁴ 미얀마 정부가 최소한 3년의 보호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약 50년 동안 국가가 보험산업을 독점해 왔으므로, 미얀마의 민간 보험업자들이 보험업에 대한 노우-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위험 예측 및 요율 산정에 미숙하여 해외 경쟁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⁵ 재경부 차관 마웅마웅테인(Dr. Maung Maung Thein)의 2012년 9월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9/14/us-myanmar-insurance-idUSBRE88D0T220120914>

⁶ “글로벌 보험사 ‘미얀마로 가자’” 한국보험신문(2012. 11. 19.)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37227&firstsec=1&secondsec=15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의 보험시장은 매년 보험 프리미엄 기준으로 미화 16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⁷ 미얀마는 1963년 국유화되기 이전에는 외국보험사를 포함하여 70여 개의 민영보험사가 있었을 정도로 보험시장이 활성화된 곳이고, 머지않아 베트남 보험시장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⁸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경제제재 완화와 미얀마의 시장개방에 따라 보험사의 미얀마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및 시장개방에 따라 국제적 지원 이어져

미얀마의 민주화 및 시장개방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2년 11월 1일 미얀마에 대한 개발원조자금으로 8,000만 달러를 승인하였고, 추가로 1억 6,500만 달러의 추가 차관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9일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총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미얀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¹⁰ 일본 정부는 27년 만에 미얀마에 대한 500억 엔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¹¹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이 미얀마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빈곤 축소를 돕기 위해 미얀마 개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2012년 10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¹² ADB는 미얀마 정부와 '중간국가협력전략(Interim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합의하였는데, 중간국가협력전략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민사회, 민간영역 등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¹³

⁷ "Analysis: Foreign insurers enter Myanmar market with hope, caution", 로이터통신(2012. 11. 7.)
<http://www.reuters.com/article/2012/11/07/us-insurers-myanmar-idUSBRE8A60YL20121107>

⁸ 로이터 통신, 위 기사 참조.

⁹ "세계은행, 미얀마에 개발원조 8,000만 달러 승인", 뉴시스(2012. 11.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806119>

¹⁰ "오바마, 사상 첫 미얀마 방문 1억 7천만\$ 지원계획 발표", 뉴스1(2012. 11. 19.)
<http://news1.kr/articles/899672>

¹¹ "日, 미얀마에 500억 엔 차관 제공키로", 머니투데이(2012. 11. 1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1816470143202&outlink=1>

¹² "ADB Moves Towards Re-engagement in Myanmar", 아시아개발은행(2012. 10. 26.)
<http://www.adb.org/news/adb-moves-towards-re-engagement-myanmar>

¹³ 아시아개발은행, 위 기사 참조.